

일산병원기금 회사 활발 김래원 불자 1억원 기증

불교인들의 불교종합병원 건립 기금 회사가 이어지고 있다. 불교신자인 김래원 씨가 지난 13일 본교에 1억원을 기증했으며 △관은주 불교아동학과 교수가 3천만원을 △신홍사 주시 성일 스님이 지난 8일 1천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명법사도 오는 20일 상량식에서 1천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선학) 발전기금팀의 한 관계자는 "상량식을 맞아 불교신자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캠 교원보직인사 발령 직원보직인사도 함께

본교는 오늘(19일)자로 양 캠퍼스 교원 보직인사와 지난 15일자로 직원 보직인사를 발령했다. 서울캠은 보직교수에 △영상정 보통신대학원 교학부장=조형재(멀티미디어학) △불교문화연구원장=권기중(불교학) △경계경영연구원장=정용근(회계학) △교육연구원장=박명희(가정교육학)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김호성(인도철학)이 임명됐다. 직원 보직에는 △학생처 취업지원팀장=이성진 △대학원 교학과장=한문우 △중앙도서관 학술통보서비스팀장=남 준 △교육방송국장=김종진 △사회교육원 교학과장=차진수가 임명됐다.

경주캠은 △사회과학대학원장=윤진호(회계학) △기획처장=김영재(경영학) △교무처장=변정용(컴퓨터학)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이태경(컴퓨터학) △정각원 교법사=김성철(불교학)이 임명됐고, 직원 보직에는 △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이강석 △교무처 학생선발실장=차준환이 임명됐다.

본사 김호성 주간 부임



본사 22대 주간에 김호성(인도철학)교수가 오늘(19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김호성 주간은 본교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7년 본교에 부임했다.

중도 제1열람실 문제 일단락

기증품 본관 소극장으로 이전 검토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학교본부간의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문제협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학교측이 기증품 이전을 고려함에 따라 우선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본관 회의실에서 '기증품 인수위원회'가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휴관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 서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진행된 면담에서 총학생회는 제1열람실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에 학교측은 "기증품 분류를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1열람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수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기증품을 교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불가피할 경우 외부 시설로 이전하

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본관 소극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증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제1열람실에 전체 기증품의 50% 정도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지만, 황영수 사무처장은 "기증자가 제1열람실 휴관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대사를 보고 심기가 불편해졌다"며 "기증자가 학생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기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총학생회는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밝혔듯이 기증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학교측과 함께 기증자를 만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면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도 기증자와 면담을 갖고 기증을 권유할

예정이다.

한편, 4천500여평 규모로 강의동과 학군단 건물이 있는 곳에 건립될 도서관은 오는 4월 중으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배치와 관련해 학교본부와 도서관, 학생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측은 자료실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학교본부는 열람실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생회 역시 학생들이 도서관 공간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한 상태이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합의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결의 ... 학원지주회 투쟁선포식이 지난 1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몇몇 단과대는 특색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해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재정 6%확보' 등의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지면안내

경산시 양민학살 현장을 찾아서 4면



최근 경상산에서 양민학살 현장이 또 다시 발견됐다. 전미특위의 진상규명

등 활동을 알아본다.

역사 재해석의 의의와 사례 5면

스크린쿼터제를 수호하라 7면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정성본 (불교문화대 선학)

'유교경'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슬데없이 한가히 세월을 보내는 게으른 생활을 하지 말라. 나는 방일(放逸)하지 않고 수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正覺)을 이루었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이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방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 무상한 것이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인류의 역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한 성인들은 한결같이 부처님과 같이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일체중생을 위한 위대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소비시키는 인류의 죄인이 된다.

'법구경'에도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불사의 경지인 것이며, 게으름에 빠진 삶은 죽음의 생활과 같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은 죽는 일이 없으며, 게으른 사람은 죽는 사람과 같다."라고 설하고 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학자가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일한 삶을 사는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곧 자신의 삶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향상의 일을 위해 대학생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생협 출자금 받아가세요"

이익배당금도 홍보 부족으로 지급율 5%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반환하고 있는 출자금과 이익배당금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졸업식 전후 약 2주동안 교과과목을 통해 지급되는 생활 출자금을 지난해에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이 교과과목에서 학사모를 대할 때 출자금을 나눠주고 있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졸업식 후에도 생협 사무국에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지만 찾아오는 학생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보관기간이 끝나면 생협의 수입에산으로 편성된다.

한 졸업생은 "졸업식 당일 전까지 생협 출자금 환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생활협동조합의 홍보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E-mail로 알려주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년 5월에 지급되는 이익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받아 가는 학생이 전체 조합원의 5%에도 못미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과대의 이주원 양은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할 때 출자금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익금을 IC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도 학생들이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의 한 학생은 "IC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일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면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생협은 출자금 금액과 이익 배당금이 모든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법대 비대위, 심교수 사건 성명서 발표

오늘(19일) 연학장·심교수 초청 공개질의

심희기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대 학생들과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구성된 법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손빈환·법4, 이하 비대위)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심교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심교수의 재임용 탈락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법대 교원인사 평가위원회와 학교측에 심교수 탈

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오늘(19일) 비상임시총회에서 심교수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가법과대위원장 심희기 교수를 각각 초청해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갖는다.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는 학교측과 법과대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심사자료를 받지 못한 점에 따라 오늘(19일)부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심희기 교수 재

임용 탈락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심교수의 재임용 탈락전 배경했던 강의는 담당교수와 강의실이 교체돼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심교수는 3학년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강의를 따로 진행하고 있으며, 15명 가량의 학생이 직접 출석부를 만들어 심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희기 교수는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형법총론도 학생들이 원하면 강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SRC·ERC 해외연구소 설치

본교 양자기능반도체연구소(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와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이하 ERC)는 각각 미국과 일본에 연구분소를 설치한다.

SRC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 연구분소를 설립했다. 지난 1일 문을 연 UCLA 연구분소는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6천만원씩을 지원하고, SRC 연구원이 파견된다.

ERC는 지난 1일 일본 Tohoku 대학으로부터 6천만원을 지원받아 일본 현지에서 연구분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 불교학의 ...' 세미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를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불교 조계종 종립학 교관리위원회(위원장=학당스님)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청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전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본교 사회교육원 김중명 교수가 '동국대 불교학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학 연구의 현주소'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 후, 본교 박경준(불교학) 교수, 서울대 박해당(철학) 교수, 연세대 신규택(철학) 교수의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사 수습기자 선발때문에 26일자 신문은 없습니다. 다음 신문은 4월 2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수습기자 모집 딱 3일 남았습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모집인원 : 서울·경주 캠퍼스 0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 취재·사진·만화·인터넷 기자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 3월 21일(수) 오후 5시
선발방법 : 필기시험(상식과 기사작성 등)과 면접
선발일시 : 3월 22일(목) 오후 6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

동대신문사

본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원타임로그인 시스템 도입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에서 본교 홈페이지에 원타임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매번 로그인을 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교수·직원들의 학사행정 정보라도 개설돼 교수·직원들의 급여와 연말정산 등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정보나 부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정보관리실은 지난 9일부터 3일간 공용 컴퓨터실습실 PC 300여대를 교체했다.

이번에 교체된 PC는 1학년 교양수업이 진행되는 실습실에 배치했으며, 하이팩 의자와 테이블도 새것으로 바뀌었다.

리영자 교수 출판 기념회 '불교와 여성' '천태불교학'

지난달 본교에서 정년퇴임한 리영자(불교학) 교수의 저서 '천태불교학' '불교와 여성' 출판을 축하하는 기념회가 오는 26일 5시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천태종의 불교사상을 전공하였으며 여성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리영자 교수의 제자들이 정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모임이다.

SRC, 22일부터 워크샵 개최 Battacharya 교수 초청 강연

양자가능반도체연구소(소장=강태원·물리학, 이하 SRC)는 오는 22일부터 이틀동안 2001년 양자가능 반도체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량관 2층 SRC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미국 미시간 대학의 Battacharya 교수를 초청해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Spintronics와 DMS 물질에 대한 강연과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등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SRC 세미나실에서 실시하며, 이메일(eesj@dongguk.edu)로도 내일(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원흥 가을학술제 세미나팀 오늘(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 박사과정 1학기)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을 학술제를 참가할 세미나팀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4명 이상의 대학원생 또는 수료생으로 연구성과를 제출계획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총학생회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25개 세미나팀에게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연구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끼장터 21일 정오 개장 재학생 누구나 신청가능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오는 21일 이번 학기 끼장터를 개장한다.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계산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끼장터는 노래, 풍물, 에어로빅, 개그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여학생실에서 받으며, 출연자들에게는 소정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끼장터가 동학의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숨겨진 끼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복위 2주간 '감독농성' 국보법 부당성 알릴 예정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광·국교4)에서 계획한 '감독농성'이 오는 26일부터 2주간 불상 앞에서 벌어진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합법화, 학생 대표자 수배 반대 등을 기치로 하는 이번 시위에서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정치수배자들을 위한 서명·모금 운동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이번 농성과 관련해 김태광 학생복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록원 매점 가격 인하 오는 28일까지 11개 품목

상록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매점의 일부품목을 할인판매 한다.

△몽골통통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빈츠를 1200원에서 900원으로 △스케익오프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국회 샌드를 1800원에서 1300원으로 할인하는 등 모두 11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다.

총학, 학자투 선포식 진행

등록금 인상반대·모집단위광역화 철회 요구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는 △등록금 인상 반대 △모집단위광역화 반대 △교육재정 6%확보와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원 자주화 투쟁 선포식(이하 학자투선포식)을 지난 1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했다.

4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번 학자투 선포식은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졌다. 김성호(정보관리3) 경영대 학생회장은 "학교측은 지난해 2001년 등록금 책정시 학생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등록금 5% 인상을 먼저 고지한 후 협의를 가졌다"며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민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은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기보다 설득하려 한다"며 "학생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집단위광역화로 인한 폐해도 지적됐다. 이재광(철4) 문과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전공선택이 인기학과로 편중되고 기초학문분야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홍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총장실을 방문해 △등록금 인상율을 학생회

와 협의해 다시 조정할 것 △2000년도 가결산을 공개할 것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 오는 5월과 9월 말 학생회와 논의할 것 △학부제·모집단위광역화와 재검토위원회 구성할 것 △수강신청, 복수전공제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제2도서관과 관련해 도서관 학생 자치 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의 요구안을 학교측에 제출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2차 협의가 진행되는 오는 21일까지 학교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요구안을 제출한 후 학생들은 본관을 비롯해 각자 잡아 당기는 '본관 넘어뜨리기'를 진행했다. 이 과

정에서 줄이 끊어져 교직원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학자총결기를 벌일 예정이며, 이날 단과대 별로 걷은 쌀을 등록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학원자주화와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학생 총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교육대책위원회(교대위) 소속 대학들과 공동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회전무대

두드리면 열릴까?

○...최근 상록원의 화장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전용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아 상록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는 장애인 화장실이 형식적인 걸치레에 그치는 격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장애인 화장실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화장실?"

중도 도둑

○...최근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지갑을 도둑맞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중앙도서관이 신입생들을 위해 학생 인증기를 작동시키지 않자 도둑들이 극성이라고.

도둑 때문에 학생들이 화장실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니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규제할 방안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도서관 도자기보다 도둑 좀 잡아주세요"

화이트 데이

○...지난 14일 중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알아보니 '학원자주화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느라 들려오는 각종 소음 때문에 자리를 뜰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학자투 선포식'은 재학생의 참여를 외쳤지만 도서관 이용학생들에게 아무런 양해 없이 진행돼 공부방해를 일으켰다는데.

게다가 정작 학생들의 호응도 크지 않아 그 근본 취지를 벗어난 격이니.

이에 도서관을 나서서 한 학생 왈, "머릿속이 깨끗해요! 화~이~트"

파로마!

○...명진관에는 모 가구 광고 CF를 찍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수업중 문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투명창에 각종 상업광고와 동아리 모집공고가 붙어 있어 학생들이 강의실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문을 벌컥 열어버린다고.

학생들은 강의실 문 가까이 귀를 대야만 강의실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파로마? 캐트린 피: 갠다. 힘쓸 노: 노력한다. 악귀 마: 악적인 존재=수업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하는 악적인 존재"

첫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임금협상·단체협약 등 논의

올해 첫 정기노사협의회가 지난 13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만에 다시 진행된 이날 노사협의회에는 학교측에서 송석구 총장과 황영수 사무처장, 직원노조 측에서는 김정대 서울캠 노조위원장과 이진형 경주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은 앞으로 진행될 임금협상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약의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은 3월 안에 1차 교섭을 시작해 4월중에 본격적으로 진행한 후 5월 초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최근 인사상 결원이 많다고 노조가 지적하자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여 인사 발령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조측은 기술직 노동자가 직급 승진이 느린 것 등 99년 단체협약 가운데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학교측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학교측으로부터 향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노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작업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 중이다. 이는 앞으로 임금·단체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몸짓사랑(?) ...

지난 15일 불상 앞에서 손짓사랑회 회원들이 GOD의 '츄를 하나'에 맞추어 수화공연을 펼쳤다. 이러한 동아리 홍보작은 동아리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생협 이사회·준비위 진행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 확정

제29차 생협이사회와 제1차 생협 독립법인 준비위원회의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허진택(영어영문학) 부총장,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 김덕기(경영4)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해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 약정서, 규약 등을 4월말까지 정리 △대의원 총회를 6월말에 개최 △생협독립법인 법적 절차를 8월말까지 마무리 등 2001년도 독립준비위원회의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이사회는 2001년 생협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켰다.

단과대 보궐선거 실시 예술대 29일·야중 다음달 2일

지난해 11월에 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한 단과대의 보궐선거가 각 단위별로 실시된다.

지난 14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술대는 차중철(영화3)군이 단독 출마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선거를 치른다.

또한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양희창(반도체과학3)·정재수(경영4)조가 단독으로 후보등록, 오는 4월 2일부터 3일간 선거가 진행된다. 그러나 아직 출마자가 없는 이과대, 법과대, 정보산업대는 오는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4.19 등산대회 신청 접수

26일부터 교학과·학생복지실에서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오는 26일부터 '제32회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참가 접수를 받는다.

4.19혁명 41주년을 맞이해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이번 등산대회는 다음달 13일 북한산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과 단체팀은 각 단과대 교학과에, 4인 1조팀과 동아리단체팀은 학생복지실에 참가인원 명단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등산대회는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호(제1313호 3월12일자) '교수교체·분반 변경' 기사중 전기공학과를 생지대, 문과대의 몇몇 학과로 수정합니다. 전기공학과 전공과목은 평균 42.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3월의 심리검사 안내

새로운 얼굴, 반가운 동기·선배들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대와 설렘들... 이 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검사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성검사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 따스한 오후, 친구와 손잡고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오세요!!

검사종류	날짜	시간	소요시간	비용	장소
MBTI (성격유형검사)	3월 13일 (화)	오후 2시	30~40분	무료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3월 19일 (월)				
	3월 29일 (목)				
학생과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3월 15일 (목)	오후 2시	1시간 40분	2천원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3월 20일 (화)				
	3월 26일 (월)				
적성탐색검사	3월 16일 (금)	오후 2시	30분	무료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3월 22일 (목)				
	3월 27일 (화)				

※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날짜·시간에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구내전화 3930, 3931)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 학과 또는 동아리 단위의 단체 검사(20명 내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출장 검사도 가능합니다.

교육실습비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 대상자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기간: 2001. 4. 2(월) ~ 4. 28(토) 4주간
- 실습비: 일급 칠만원정(₩70,000) -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실습비 접수 기간
2001. 3. 21(수) ~ 3. 22(목) 16시까지
-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및 장소
2001. 3. 30(금) 17:30 사범대 소강당(학림관)
- 교육실습 일시 및 명할 교부
2001. 3. 30(금) 오리엔테이션 후
1) 사범대생: 각 학과별 배부
2) 비사범대생: 교학과에서 일괄 배부

ROTC후보생 군장학생 모집

학군단에서는 2002년도 ROTC후보생과 2001년도 군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패기 있고 용기있는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도전 바랍니다.

- 모집기간
ROTC후보생: 5. 12(토)까지
군 장 학생: 4. 7(토)까지
- 지원자격
ROTC후보생: 2학년 재학생
군 장 학생: 1, 2학년 재학생 중 대학성적 C학점 이상자
- 문의: 2260-8537

제112학생 군사교육단

취업희망원 제출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2001년 8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추천 및 알선 자료를 활용하고자 취업희망원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모든 졸업예정자분들께서는 취업희망원을 작성하시어 학생처 취업지원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희망원 양식은 취업지원팀 및 각 대학 교학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5)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과 문제점

새만금사업 올바른 처리방안 모색해야

얼마전 농림부가 내놓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20문 20답)"라는 대국민 설득 자료를 보고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다르다는 주장이 무척 인상적이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간척사업 이해 필요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습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다시 생각할 문제다. 나일강 하구나 브라미푸트라강 하구의 삼각주를 보자.

줄어들었다기 때문이다. 쌓이고 다져져서 낮아지면 또 다시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삼각주의 크기와 높이가 유지된다.

방조제 외측에 쌓이지 않고 수로나 항구에 퇴적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북편에 자리잡은 금강하구에 하구언이 들어서고 난 후 수로나 항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

네덜란드의 간척은 점진적으로 바다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해일을 막아내기 위해 일종의 인공사구인 모래둑을 쌓는 것이었다.

나라의 그것과는 몇몇 관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쥘다지 지구는 사주섬으로 보호되어 있는 곳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의 상승률이 급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백년 확률의 초대형 해일도 그때는 빈번해질 것이라고 한다.

시화호를 타산지석으로

지난 해 어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새만금사업에 관한 TV토론회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농지가 풍부한 나라들도 간척을 하는데, 땅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왜 못하느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유근배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미국 습지는 생태적 기능이나 수질보호 등 공익성 확보라는 관점과 개인재산권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안습지의 경우에는 해안역관리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가지고 철저히 보전하고 있다.

우리는 시화간척지구 등 여러 대형국책 사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그토록 큰 희생을 치루면서도 정작 그것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2차 정상회담 준비

제2의 '공동선언' 범국민운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문 마지막 부분이다. 이 약속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 아래 시민·사회 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 답방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육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 강연회 등을 준비해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최규업 자주통일위원장의 말처럼 통일 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합 정광훈 위원장의 "전농 소속 농민들이 아니라 모든 농민이 통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각종 환영 행사도 줄을 이을 예정이다. 전국연합은 4월경에 가칭 '범국민환영기구'를 결성해 김위원장 답방 환영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한총련도 김위원장 환영 문화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국 통일운동 단체들의 힘을 합

쳐서 모든 통일연대는 지난 15일 민주노총, 경실련 통일협회, 통일맞이 등 28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결성됐다.

앞으로 김정일 위원장 답방 환영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것은 아니다. 최근 본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 발언에 따른 파문확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앞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김위원장 답방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연합 한홍목 집행위원장은 "4월 답방은 지체적이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볼 때 5월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방 시기를 전망한다.



으로 보인다. 본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남한의 대북정책이 미국 입장으로 기술자이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북한이 장관급 회담을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위원장 답방을 준비하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에 눈길이 모아진다. 이들 단체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일 행사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으로 진행될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해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이상으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말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교수제임용제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 많은 대학에서 제임용심사에 탈락하는 교수들이 부쩍 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본교 법과대학 심회기 교수가 지난달 제임용에서 탈락해, 교수회를 비롯한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탈락사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교수 제임용 기준이나 실시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아 대학이 교수를 제임용에서 탈락시킬 때는 탈락 이유를 통보할 의무조차 없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수제임용제는 올해로 폐지, 내년부터는 '교수계약임용제'가 모든 국·공·사립대에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욱 치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함께하는 총학생회를 바라며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총학생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입학식 때 등록금 협의와 자치권 확보에 앞장섰다는 총학생회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지위를 감춰버렸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에서는 전체 단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찬막농성에 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등록금 협의의 전개 방향이 총학생회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찬막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학생회 행동과 입장표명에서 그들이 진정 등록금 동결과 자치권 확보를 원하는지 의문스럽다.

총학생회는 총학 선거 당시 지난 해 등록금 협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올해 확실한 승리로 이끌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지난 선거유세 때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을 바꾸겠다고 외치던 총학생회의 모습을 지켜봤다.

앞으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당당히 대변해 주고 학생회 중심에 우뚝 서는 대표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전화 (02)2260-3481~2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4)770-2168

2001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2260-3483 Fax. 2268-7851

세계권의 문학사로 한·일 양국의 가깝고도 먼 거리를 극복한다

일본 메이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30면 / 1만2천원



1868~1912년까지 일본현대문학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메이지 시대 문학의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나카무라 미쓰오의 일본 메이지 문학사.

일본 다이쇼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05면 / 1만원



1910~1927년까지의 다이쇼 시대의 문학사를 현장감 있게 기술. 이 시대의 화려함 속에 깃들인 어둠을 보여주는 우스이 요시미의 일본 다이쇼 문학사.

일본 쇼와문학사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92면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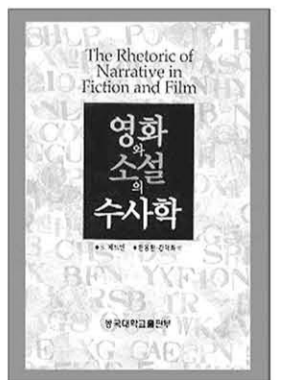
1927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자살에서 패전으로 인한 점령과 재건에 이르는, 쇼와 시대의 문학을 정신사적으로 분석한 히라노 겐의 일본 쇼와 문학사.

서사적 분야의 명저 이야기와 담론 - 소설과 영화의 서사 구조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역작.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고재석·김환기 역 / 신국판 / 392면 / 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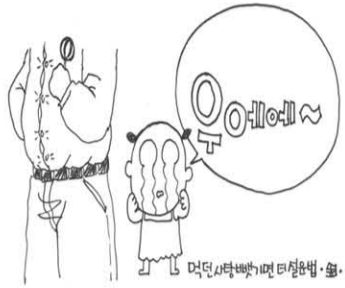
'이야기와 담론'의 저자, S-채트먼이 십 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또 하나의 서사이론의 지침서!



서사학자인 채트먼이 이 책으로 우리들에게 언어 서사물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면,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은 영화를 서사적 분석의 중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전자의 결함을 훌륭히 보완하여 영상서사를 언어 서사와 나란히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약로

뺏긴 사랑



“일방적인 RRC 한의학과 유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5일 한창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시간, 3백여명의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들이 원효관 중정에 모였다.

이들 중 5~6명은 북을 치며 흥을 돋우는가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이리 소란스럽지. 또 어떤 학생회가 들고 일어났는지?”

“이번엔 어떤 내용의 집회래?”

방금 수업을 마치고 중정을 지나치는 두 여학생은 집회의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학생들 곁으로 다가선다.

“한의대생이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나봐. 그런데 RRC가 뭐야?”

“RRC?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역 개발센터래!”

2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는 큰 소란 없이 한의대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의대 학생회는 “지난 8월 한방병원 이전과 동시에 교육 환경이 개선된 한의과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대의 실험 실습과 연구 등을 위한 공간 문제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었다.

그러나 한방병원 이전 후 학교측은 지속적인 타당대의 교육 공간 요구에 따라 최근 “한의과관에 한의대, 의대, 자연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생명 산업 연구 시설인 RRC 공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RRC 공간 유치는 학생회와의 협의 없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는데 문제가 있다.

비단 공간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에서도 학교측은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진우 기자
sniper@mail.dongguk.ac.kr



경산시 양민학살 현장을 찾아서

끝없이 발견되는 미군 양민학살 현장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의 사과 필요

다. 전민특위가 활동을 벌인 지 1년, 베일에 감춰졌던 양민학살의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인근 마을주민들을 통해 양민학살에 대해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을 줄은 몰랐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 모두가 그들을 죽인 셈이지”

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불출기를 타고 떠나려온 유골들을 자주 발견했다고 얘기한다.

“양민학살 이후 피비린내 나는 물 몇년동안 흘러내려”

100m 되는 수직굴을 가득 메운 사체가 두 갈래로 나뉘어진 수평굴의 얇은 벽을 뚫고 새어나와 마을 아래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떠나려온 것이다.

하지만 유골들을 발견하면서도 유족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속에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이들에게 강요한 것은 오로지 침묵뿐이었다.

“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피가 섞였는지 붉은 색을 띠어서 그 물을 마실사람 누구도 먹거나 사용할 엄두도 못냈지. 몇 년동안 계속 흘러내려 왔어”

마을 주민의 증언은 당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정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뿐, 어떠한 사과나 배상은 물론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도유족회의 박희춘회장은 “그 동안 정부에 수 차례 진정과 탄원을 했지만 정부는 그 당시 사람이거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말로 피해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6일 광산앞에 경산시민단체 및 유족들이 모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 및 발굴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각 정당과 청와대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진상규명 뿐만이 아니라 대량학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전민특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전민특위 관계자는 민족의 이름으로 한국전



▲유골더미 속에서 머리에 총자국이 선명한 해골이 눈에 띈다.

▲양민학살 대책위 장명수 위원장은 발굴현장의 참혹함을 설명하고 있다.

▼1950년 7월 30일자 대구일보는 '대구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광산에서 학살된 약 1,500명의 명단으로 추정된다.



쟁 당시 미국이 저지른 학살을 낱알이 파헤쳐져야 하며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그 것만이 50년간 진실이 규명되기만을 기다리며 방치되어 있던 폐 코발트 광산 속 유골을 편히 잠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처럼 잠시 수면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이들을 편안히 눈감게 해야 하네”

진상규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는 장명수 위원장의 얼굴에 확고한 의지가 가득했다.

박현호 기자

blue@mail.dongguk.ac.kr



여성 평등 실현위한 입법노력 절실

근로조건 개선·성범죄 처벌 강화·성씨 선택의 자유 인정돼야

여성, 나라의 씨!

여성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본사 사회부는 길 길이 먼 여성의 평등한 인권확보를 위해 3회에 걸친 기획을 다루고자 한다.

- ①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얼룩진 사회 현실
 - ② 경제위기로 다시 불거진 여성노동자 문제
 - ③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편집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여성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시켜 왔으며 여성 친화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나치게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여성들이 진정한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법과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 청원했다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여성노동 관련법들을 들 수 있다. 여성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간접차별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책임 강화 △직장내 폭언·폭행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 시설은 사립·민간시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보육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높이고 △영아 장애아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표준보육단가 현실화 △보육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등 보육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즉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거나 ‘동’이 아닌 ‘저항’에 기초한 강간개념을 개정할 것,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동성간 강간, 성기 이물질 삽입,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 수사 및 재판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성 의무화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이 광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매매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 매춘 여성들에 대한 재활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윤락 행위등방지법은 매춘여성들을 규제하고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 매춘 여성들이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매춘여성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매매춘 전반을 다루는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여성 불평등 조항으로 남아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씨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호주제 및 부계 성을 일차적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인 성차별법이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의 불평등성을 명시하고 조장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부장제적인 이데올로기와 관행을 깨는 문화 전개를 개혁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장미경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민중운동진영 한목소리 “우리 이제 함께 합니다”

진보 운동 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민중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비위원회’(이하 민중연대)가 발표했다.

재야, 노동, 농민 약 30개의 단체가 동참한 민중연대는 지난 96년부터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개악·IMF 등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창설된 상설공동운동위원회의 민중연대 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진영 연대기구이다.

이날 민중연대의 공동대표로 추대된 민주노동당 단병호 위원장은 “앞으로 민족민주운동진영과 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조직을 단위를 만들어 민중대회 개최, 지역민중운동, 실업문제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30일에 열리는 민중대회부터 민중진영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는 노동계와 소외계층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단일 민중운동네트워크로 최근 대우자동차 사태로 불거져 나온 정리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민중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역사 재해석의 의미를 찾아

역사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거울

무분별한 재해석보다 본질을 인식하는 자세 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시대일수록 역사가 많이 쓰여지고, 많이 읽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못 시사적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드라마에 대한 일반인들의 과도할 정도의 관심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시 쓰여지는 역사

역사학이란 계속하여 다시 쓰여질 운명을 타고난 학문이다. 흔히 객관적 역사, 과학적 역사라는 모토 아래 학문의 엄정성과 중립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역사학이긴 하다. 그러나 역사학이란 그 자체가 그 시대마다 시대정신과 당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느 한 시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그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술을 꼽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시대마다의 관심사의 변화에 맞추어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마련인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 성행하는 방송매체를 통한 역사드라마의 유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역사드라마는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역사서술이 아니라라는 것이 자명하다. 사극은 우선 허구적 구도를 가진 드라마이다. 따라서 허구적 작품에서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드라마 역시 우리 시대의 역사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역사드라마는 그것이 다루고 있는 해당 시대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시대가 해석을 가한 하나의 역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먼 훗날, 21세기초의 한국 사회를 역사학적으로 접근할 때, 그 드라마들은 이 시대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역사 왜곡의 위험성

이렇듯 역사는 시대와 민족 및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재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때때로 이해 관련 집단들에 의해 왜곡되어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대 일본이 정치적으로 구제외의 모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모색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반추하고 또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시대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년간의 일본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역사를 자국의 후속세대에게 전수한다는 것은 단지 부끄러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 시대의 문제점을 역사 재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결국 그 재해석은 실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재해석의 왜곡은 위에서 본 역사드라마의 허구적 재구성의 과정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시대요구에 따라 해석된 역사

서양의 경우 이전 시대나 다른 민족에 대한 재해석의 왜곡 사례는 르네상스 시기의 역사관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기는

문화적 창의력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전의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Modern)를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에 따라 이전의 천년간을 중세(Middle Ages), 즉 고대와 근대의 중간에 끼어있는 의미 없는 시대로 규정하였다. 그들에게 중세는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시대라는 경멸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삼백 년 후 근대 역사학이 전문분과로 자리 잡은 이후,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중세는 산업혁명과 정치혁명기에 활동했던 위상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즉, 19세기의 혼란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되돌아 본 중세는 안정적이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상향적 시대로 미화되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그 해석은 종종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본질을 심분 인식하고, 함축 초연하고 의연한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해야만 하겠다.

임상우
서강대 사학과 교수·역사학회 총무이사



민태진 교수의
과학 이야기 (1)

과학의 기원과 서양과학

과학(science)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지식이란 어원의 scientia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반복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정신과학과 형이하학적인 물질과학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어왔으며, 온갖 사물에 정통한 사람을 박물군자라 일컬어 왔다. 오늘날 박사라는 말은 삼국시대부터 이 박물군자의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대 변천에 따른 지식의 변화와 그 양적 팽창에 따라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으로 나누어 취급하게 되었다. 물질과학, 즉 자연과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무 세분화되었기에 포괄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불을 발견하면서 석기 시대를 구워 그것을 만들었고, 구리와 같은 금속을 녹여 쇠붙이를 만드는 연금술로부터 시작되었다.

동양의 연금술에 관한 근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포박자'라는 책의 내권 4권에 '금단'이란 말이 나온다. 이것은 변화의 상징인 수은과 불변의 상징인 금을 잘 조합하여 만들고, 이를 복용하면 불로장생의 신선과 같은 도학군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양의 연금술은 미신적이면서도 비현실주의적인 사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서양 연금술의 시작은 아랍의 게베르가 쓴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철학자의 돌'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을 찾아 잘 이용하면 아연이나 납과 같은 천금속으로부터 금이나 백금과 같은 값비싼 귀금속을 얻어 일확천금할 수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는 미신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인 사상으로 출발되었다.

이처럼 동양의 연금술이 서양의 그것에 비해 430여년이나 앞서지만 그 사상의 차이로 인하여 서양에서는 이미 17세기경부터 실험과학이 태동했다. 이로 인하여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며 이 원자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그 성질이 다르고 서로 상호 변환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작은 알갱이로 쪼갤 수도 없다"는 새로운 물질관이 등장하였다. 아연이나 금도 서로 다른 원소라 상호 변환될 수 없으며 과거 연금술사들의 생각이 헛된 모순임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중세 자연과학은 크게 발전되어 왔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퀴리 M. S. 부처는 우라늄 원소 속에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을 내는 라듐을 발견하였다. 그후 러더퍼드는 이 라듐 원소로부터 알파입자라고 하는 헬륨 원자핵이 튀어나오음을 발견했으며, 이 알파입자를 질소 원자에 쬐었다니 놀랄게도 전혀 다른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다. 이로써 알파입자라고 하는 '철학자의 돌'이 드디어 발견되어 아연으로부터 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연금술사가 새로 등장한 것이다. 또 사이클로트론이나 싱크로트론이나 하는 입자가속기가 발명되어 '철학자의 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자는 '상호 변환이 가능하며 작은 알갱이로 쪼갤 수도 있으며, 화학반응을 통해 질량도 변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물질관이 등장하여 질량불변의 법칙이 무너졌다. 이때 감소된 질량은 곧 에너지로 방출돼 물질과 에너지는 동등함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수소의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폭탄과 인공 태양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전쟁과 평화의 양면성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동서양의 연금술사들의 사상 차이로 인해 서양의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속도는 동양에 비교할 수 없이 빨랐다.

동아투위 26주년 학술회의 열려

지난 17일 동아자유인문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26주년 기념식과 함께, 학술회의가 열렸다. '자유인문과 민주주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세무조사 실시로 불거진 언론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로 한양대 정대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상관관대 방정재 교수는 '동아투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정치권력과 아합해 사회부패를 내버려두면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썩게 마련"이라며 "여론의 다양성에 적신호가 울리면 민주주의에도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언론개혁과 사회개혁'의 연관성을 밝히고, "언론이 잘못된 구조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혁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이 증편 경쟁, 분공장 설치, 불공정 거래 등 무한경쟁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력과 손잡을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경영권과 편집권을 장악한 1인의 사주가 모든 여론을 좌우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김서중 교수는 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언론지배력과 소유지분의 반비례를 통한 소유구조 개혁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집권을 독립 △경품 이용 등 왜곡된 유통 구조를 공동관제 이용으로 해결 △ABC 제도를 정착시켜 판매부수의 정확한 공개로 합리적 광고료 산출 △소수신문에 의한 시장 독과점 방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투위 성유보 위원장은 "언론인들에게 언론 자유는 비판을 위한 것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으며, 민연련 김택수 정책위원은 "동아사태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한국고대사 연구회 회장을 만나서

“답사통해 나만의 역사관 만들 터”

궁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작가와 연출가에 의해 재해석된 사극을 그대로 믿는 일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와 더불어 역사 재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본교 사학과 내 학회인 한국 고대사 연구회 회장 박은정(사3)양을 만나 역사 재해석의 또 다른 분과라고 할 수 있는 유적 답사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양은 사학과에서 봄가를 두 번에 걸쳐 떠나는 답사와 학회에서 준비하는 여름 겨울 답사까지 1년에 걸치는 4번의 답사를 다녀오는 역사학도이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역사 이야기를 답사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라며 자신이 다녀온 답사 지역을 하나하나 되뇌이는 박은정양. 답사 일정을 정하면 곧 주제를 정하고 사전 세미나와 논문 준비로 눈 코를 새 없으며, 벌써부터 이번 달 말일 '신라불교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떠나는 답사에 대한 설레임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익산에 있는 두 개의 미륵사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유적으로 꼽는다. 가

까운 거리에 놓인 두 작품 모두 미륵사지를 복원한 것으로 하나는 허물어진 부분에 시멘트를 발라 형태를 보존한 일제 때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기계로 깎고 인위적인 색깔까지 덧입혀 복원한 것으로 복원하나마나 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때 우리의 문화재 보존 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이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TV나 책을 통해 흔하게 접하는 역사는 재미 위주가 많은 것 같다"며 "고대사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설보다는 학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을 풍부하게 경험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기를 당부한다.

"답사를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역사 재해석이라고 하면 학계에 공식



박은정(문과대 사3)

발표된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박은정양은 끊임없는 공부와 답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이면을 스스로 찾아보고 있었다. 자칫하면 역사는 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박은정양의 이러한 탐구모습은 우리의 알팍한 역사관에도 자극주는 바가 큰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고수동정



▲강태원(물리학)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에서 공동연구 협의 및 자료.



▲송민규(반도체과학)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01년 IEICE 전자정보학회에서 논문발표.



▲박명길(법학)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세계우주법학회(IISC)와 싱가포르법학회(SILS)가 공동주최한 '2001년 우주법대회'에 참가.



▲연기영(법학)
=지난 3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고수 불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대 회장으로 선출.



▲유지나(영화영상학)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

P2P, 과연 제4의 물결인가

막연한 환상보다 보안·저작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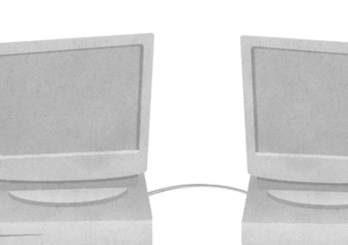
MP3 파일공유프로그램인 냅스터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P2P(Peer to Peer)라는 말이 우리에게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차세대 인터넷', '정보화 시대 제4의 물결'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P2P.

P2P란 친구나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eer to Peer의 준말로,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야후나 엠파스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인 P2P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의 PC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받아 검색하고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검색엔진에 한정된 검색에서 벗어나 폭넓은 검색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적인 P2P업체인 냅스터(www.napster.com)나 그누텔라(gnutella.wego.com) 외에 국내에는 한국판 냅스터라 불리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 실시간으로 전자상거래가 진행

되는 오픈포유(www.open4u.co.kr), 각종 소프트웨어와 자료들을 제공하는 체계바라(www.wowfree.net), 영상정보 메시지 씨프랜드(www.seefriend.co.kr) 등 많은 업체들이 P2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외우프리커뮤니케이션, 오픈포유, 대우정보시스템 등 국내 30개 P2P 업체들이 모여



한국P2P협회가 출범함으로써 P2P서비스의 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픈포유 전석환 컨텐츠 개발팀장은 "P2P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는 P2P가 인터넷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2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된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해킹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냅스터의 경우처럼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음란물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만은 않다.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P2P서비스의 경우 접속된 PC끼리 서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며 "실제로 지난 1일에는 P2P프로그램인 그누텔라를 통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보안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냅스터를 통한 MP3 파일 공유를 위해 사용했던 P2P 기술은 최근 지식관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문제로 진통을 겪는 등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P2P가 진정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나 보안등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진정한 자유



이시영
삼경대
경제학과 교수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학기는 캠퍼스 전체에 활기를 가득 불어넣는다. 아마도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대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모처럼 누려보는 자유로 들떠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새내기들은 갖 시작한 대학환경에 적응하는 일부러 소속학부, 선배, 동아리의 한 시구가 되는 것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에 필자는 소속 학부의 신입생 환영회 겸 개강파티에 참석했다. 그때 만난 새내기들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 날 새내기들은 소위 '캠퍼스의 자유스런 분위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것은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지식과 학문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는 것이다.

자제하지 않는 무제한적 자유는 오히려 방종이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자유와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방종과 타락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의미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21세기를 흔히 지식기반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남이 흔히 가지지 못한 유용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부가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모든 학생들이 주력해야 하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여 자신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대학이 학문만 연마하는 곳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신학기에 줄지어 이어지는 신입생 환영회나 개강파티에서까지 아카데미한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

놀고 즐기는 자리에서는 놀고 즐기는 일에만 열중하면 된다. 다만 파티에서 마지막 술잔을 들고 난 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슬픈 역사의 기록 “금이야 사랑해”

윤금이씨 사건 재현 ... 주한미군 범죄 경종울려

가수 안치환 씨는 그의 노래에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때의 이야기이다. 여기 가난과 매춘의 굴레 속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인 꽃이 있다.

지난 92년 10월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당시 나이 26세였던 윤금이 씨는 자궁에 플라방이, 항문에 우산대가 꽂힌 채로 살해당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사인은 '둔기 가격으로 인한 안면부 함몰과 과다출혈', 범인은 미군 부대 의무병 케네스 마를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의 주목을 받으며 분노의 외침을 불러왔지만, 결국 한미행정협정(이하 소파)에 의해 범인이 15년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오늘, 문화의 이름 빌어 우리 앞에 되살아났다.

극단 창작무대 우리과 여성문화예술기획은 공동기획 연극 '금이야 사랑해'를 무대에 올렸다. 다음달 29일까지 소극장 '오늘·한강·마너'에서 공연되는 이 연극은 세월이 무더기처럼 무더기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1992년 10월 28일, 어느 신문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한 대학생에게서 동두천의 윤라씨가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온다. 이 한 통의 전화로 부터 시작되는 연극은 체포된 대학생의 기억을 따라 소위 양공주라 불리는 그녀의 생활을 추적한다. '집승' 또는 '기계' 취급을 받는 그녀의 삶은 폭력과 음주, 욕설



미군들에게 유린당하는 윤금이.

로 점철되어 있다. 극중 주인공 윤금은 이런 나날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결과는 주한미군에 의한 죽음일 뿐이다.

연출을 맡은 변영국 씨는 "윤금이 사건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중요한 것을 잃고 패배감과 이혜타산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를 비판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윤금이 씨 사건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김관태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소파 개정안 비준을 반대하며 할복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회는 개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들을 담고 있고 주한미군의 사격장 매향리에는 매화 향기 대신 탄약 연기만이 자욱하다. 이런 세태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사회 각지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이런 때에 문화, 그것도 연극이라는 장르를 빌려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메아리에 힘을 실어 현실에서 부르는 부활의 노래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시들어 가는 동아리에 생기를!

지금 대학가는 신선하고, 신뜻하고, 파릇파릇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 새내기들은 형형색색의 머리모양을 하고, 교복에 눌러왔던 패션감각을 유감 없이 자랑하고 나선다.

흔히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하라, 사랑하라,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동아리 생활이다. 동아리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짜여진 학과, 학부와는 달리 대학사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아리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동아리를 찾는 신입생들의 발길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새내기들이 찾지 않

는 전통 문예나 학술동아리는 어느새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 이상 문화를 고민하고 고적담사를 하겠다고 나서서 신입생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색적인 교양동아리에 넘치는 활기는 대단하다. 카레이싱이나 광고동아리에 들겠다는 신입생들의 숫자는 놀랄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동아리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다. 본교 신입생 이유순(인문대1)양 역시 "단지 노래나 율동을 배우는 동아리는 싫다"며 "윈드서핑을 즐기거나 카페텔을 만드는 동아리에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지금 대학은 학부제와 모집단위광역화의 영향으로 철저히 개인적인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새내기들은 학과가 아닌 동아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동아리 편식현상은 마지막 남은 대학문화의 희망을 꺾고 놓고 있다.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이다. 비록 과거의 저항 문화는 변형된 언더문화로 그 맥맥만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지배문화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동아리뿐이다. 편종되지 않은 동아리 활성화 통해 대학문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박유리(민예총 문화정책기획실 간사)씨는 "앞으로 대학 동아리들은 문화 생산의 주체성을 가지고 대학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한다.

어쩌면 대학문화는 사랑진단서를 받아 들고 시험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 동아리가 무거운 겹대기를 벗어버리고 문화적 주체로서 일어설 때 대학문화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잡은소식

리어왕

서울캠 연극학과는 2학년 정기공연으로 리어왕을 공연한다.

이번 리어왕은 본교 재직중 올해 서울예술대학교 학장으로 임용된 안민수 교수의 반안작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새로운 리어왕을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19일)부터 21일까지. 4시/7시. 90주년 기념 문화관 지하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8753



아름다운 사인(死因)

서울캠 극예술연구회는 제18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장정의 '아름다운 사인'을 원작으로 하는 이번 연극은 여러 구의 시체에 담긴 사인(死因)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그린다.

오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22, 23일 7시, 24일 5시/7시. 학생회관 5층 극예술 연구회 소극장에서. 문의 2260-3789



현여울 연주회

서울캠 기타 동아리 현여울은 제21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중주와 합주로 나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8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6현의 기타가 만들어내는 화음에 젖어 봄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는 24일(토) 6시. 본관 3층 강당에서. 문의 011-9337-7446(장소영)



문화박람회

경주캠 동아리 연합회는 '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아리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동아리 홍보와 신입생모집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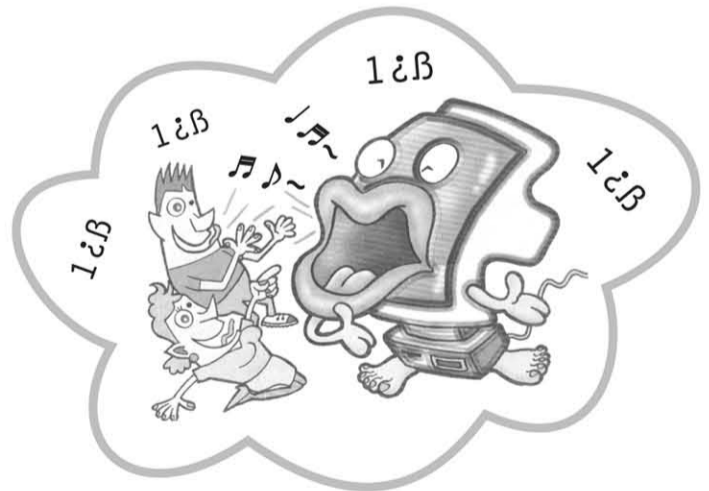
오늘(19일)부터 22일까지. 오후 4시. 백상탑 앞 기실공연장/원효관 중정에서. 문의 (054)770-2740

공연명	영화·애니메이션	전시공연
19일 불휘, 소리창고, 류토피아 유로스, 솔메리아		
20일 동국음악회, 세븐글라스 남남방 북남방, 알상	소나기(영화상영)	영상, 동막회
21일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울회, QUEST, 허방울짓		고적연구회
22일 화랑선무부, 신리택전회 근저소리, 탈패	또다른 이야기 (애니메이션 상영)	또다른 이야기

문화기획



가요 순위 프로그램 풀코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신문사

매체비평

김영삼

김영삼대통령 회고록

“성찰은 없고 권위주의, 자화자찬 넘쳐”



회고록을 통해 자기미화를 하고 있는 YS.

조선일보사에서 '김영삼대통령 회고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회고록에서 YS는 자신의 재임 5년 간을 연대별로 상·하권 6부에 나눠 국정의 주요한 주제에 대해 솔회하는 형식을 취했다.

미를 가진다. 때문에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중요 사건들의 세세한 전말뿐 아니라 그 결정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뇌와 갈등이 있었는지가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총리(이회창)를 불러 '총리로서 혼란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이총재는 '잘못했으니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한시간 가까이 혼이 난 그는 내 집무실을 나가면서 출입문을 찾지 못해 허둥대기도 했다"는 식이다.

의 위기상황임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다'며 통치권자로서의 반성과 성찰보다는 '변명'을 앞세우기도 한다. 물론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고 자기에게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 영화계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할리우드 독과점에서 자국영화 보호·육성하는 스크린쿼터 수호해야

스크린쿼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영화산업이 파괴되자 상대적 안정성장을 이룬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강요에서 자율로 빛 좋은 개살구 영화산업 전면개방의 신호탄은 88년 할리우드 직배가 허용되고, 94년 프리트벨 수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부터였다.

극장은 대박이 예고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으며, 블록버스터를 받기 위해 할리우드 직배사가 제시하는 배급 스케줄에 따라 B급, C급 영화를 '올며겨자먹기'로 상영해야 했다.

문화 버팀목 그러나 할리우드의 위협이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된다. 인류는 산업화의 결과로 야기된 생물 종다양성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에 의하면 극장은 연간상영일수의 40%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되어 있다. 365일 영화를 상영한다면 146일은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제작편수 수급 상황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20일 범위 내에서, 설이나 성수기 때 최대 20일까지 각각 의무일수를 경

감할 수 있어 최소 의무일수는 106일이 된다. 이 106일은 극장점유율 29%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30%를 웃도는 형편을 감안하면, 스크린쿼터가 각 극장에게 한국 영화 상영을 강요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용적으로, 즉 흥행 수익면에서도 알차게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현대 영화산업의 핵심을 배급이라고 한다. 배급에서 소외당하면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극장에 간판을 걸 수 없다. 배급을 장악당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그러나 할리우드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스크린쿼터는 문화, 산업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버팀목인 것이다.

정지영 감독 전화 인터뷰



정지영 영화감독

지난 5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영화계 대표 인사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영화와 관련된 대표자, 영화인 등이 모인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정지영(51)감독에게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영화인들에게 스크린쿼터는 어떤 의미인가. = 영화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려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영화는 존재해야만 한다. '일본 영화', '러시아 영화'도 존재해야 하고 저 멀리 '가나 영화'도 있어야 한다. 영화는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문화 그 자체다.

- 최근 우리 영화가 시장 경쟁력이 높아져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몇 년 새 우리 영화의 흥행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가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 해외사례

최근 각 나라들이 '자국영화 지키기'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스크린쿼터제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국에 달한다. 자국에서 영화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수는 그리 적은 편이 아니다.



스크린쿼터 수호

메아리

행님의 두 얼굴

▲“행님, 제가 말입니다. 행님. 옆 집 아그들하고 잘 지내בל려고 하는데요 행님. 어땡습니까요, 행님.”

만인 적용된다. ▲세계적인 행님으로 불리는 미국이 요새들어 한반도에 넘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자국의 무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다.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한미 연합사령관은 물론 파월 국무부 장관 모두 433천억원이라는 무기대입 사상 두번째로 많은 예산이 드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로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할 정도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을 방해함으로써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무기 구매와 부시대통령의 열망인 NMD구축 협조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자는 속셈이 배어있는 듯 하다.

런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한 주 먹하신다. 군사·정치적으로 약한 남한에 자기 물건 사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자신은 지키지도 않는 협약을 북한에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는다.

소나기

부시>DJ(?)



△무능력한 가장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부시, 콜라병 들고 부시맨한테 가서 약한자에게 배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떨지?
 △부시부시한 부시맨한테 밀리면 쪽팔려~ △현실~대처!
 △안타깝다. 우리는 진정 미국의 속국인가!
 △부시는 왜 그러지?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산다.
 △DJ 승리의 그날까지 싸우자.
 △대중이행!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지 말았잖아.
 △부시의 정책 의심해야...
 △왜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까?
 △유일하게 맘에 드는 김대중의 한 부분. 부시의 작은 논리에도 햇볕이 통하길...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
 △부시>DJ(?)>NO~ 부시<DJ(!)>YES.
 △그럼 대통령 자리가 그리 쉬울 줄 알았나?
 △미국 땅>한국 땅
 △뒤 달라고 뭐! 어찌라고 어!
 △부시의 대북정책보다 대남정책은 더 궁금하다.
 △나야(?)>부시< DJ △미국>한국=북한
 △DJ어, 부시의 논리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돼!!!
 △DJ는 햇볕정책, 부시는 힘에 의한 대북정책(?). DJ가 더 우월한 거 아닌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은 확실한 준비를 해 가야 했다.
 △결국 정상회담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것인가?
 △부시>김정일>DJ(?)
 △DJ는 부시에게 확실한 논리로써 맞대응을 해야 했다.
 △언제쯤이면 미국 없이 우리만의 평화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부시는 남 잘되는 거 배아파하는 사람인가?
 △7:30이 아닌 5:50로 만들어 나가자!
 △친선과 우호 속에 가려진 그들의 검은 그림자.
 △미국 그 한국

학생들 의견없어 아쉬워

사립대학의 학생으로서 6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기사들이 참 인상적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지적들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느끼는 부패의 정도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다 빨리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여러 노력과 운동이 일고 있다는 반가운 기사였다.
 그리고 임규권 변호사의 매서운 지적과 김태정 회장 기사의 대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짊어질 우리들의 배움터 개선을 위한 일인만큼 주역인 학생들의 의견과 구체적인 활동에 관한 기사가 빠져 있어서 아쉽다.

김혜령 (이과대 화학3)

객관적 시각 필요할 듯

기획연에 실린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기사는 기획의도는 돋보였으나 아쉬움이 남는 글이었다.
 '사립학교법 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찬반논쟁의 의견 제시까지는 매우 객관적 입장에서 중립적 방식을 사용한 듯 보였다. 하지만 6면 첫 기사에 '사립학교법 개정, 부패척결의 신호탄·교육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이미 기자의 의견이 개입되어 있다. 서두의 질문은 물론 찬반논쟁도 무색하게 되어버린 일관성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도 결국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차라리 사립학교법 때문에 생겨나는 비리나 부작용을 열심히 폭로하는 쪽에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은지 (인문대 국문3)

남산언덕이 내집 정원처럼 여겨져

'학교의 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무슨 학교가 이렇게 산에 자리잡았어' 독자 중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래의 경험을 읽어보고 이렇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졌으면 한다.
 본교에 합격하고 입학을 기다리던 중 우리학교 출신인 큰 이모는 "남산이 우리학교 정원 아니냐? 술도 먹고 산책도 하고 좋잖아"라는 말을 했고 나는 이 말에 마음이 부풀었다. 동대는 멋진 학교라고, 그런데 입학후 일주일일이 지나고 그때 그 마음은 사라져 버렸다. 수업을 듣기 위해 문화관에서 학림관까지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하는 상황이 학교의 터를 원망하게 만들었다. 힘들다. 힘들다. 수업듣

기 힘들다. 이렇게 일년이 지나고 새내기들을 맞이한 후 보름을 보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을 깨달았다. 두 달만에 오르는, 그렇게 넘을 수 없던 고개를 힘들이지 않고 웃으며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응원가의 한 구절처럼 내 다리는 풍상에 가다듬어져 있었고 학교의 터를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다. 큰 이모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고 나는 이제 남산이 우리학교 '정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기분 좋은 변화이다.
 새내기 여러분들도 지금은 수업듣기 힘들지만 곧 비슷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김동국 (불교대 불교학부2)

대화가 술 문화, 지성인으로서 반성해야

개강을 맞아 학과와 소속 동아리의 개강 총회가 찾아 성건동에 자주 나가기 된다. 하지만 최근 성건동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추태'라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는 기행들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술에 취해 주택가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서로 싸움을 하다 결국 파출소에까지 불러 가는 사람 등 보기에 민망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이 바로 동국대 학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반쯤 술에 취인 그들의 대화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대학생으로서의 지성을 내세우곤 한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지성적이라고 나무라는 사람들,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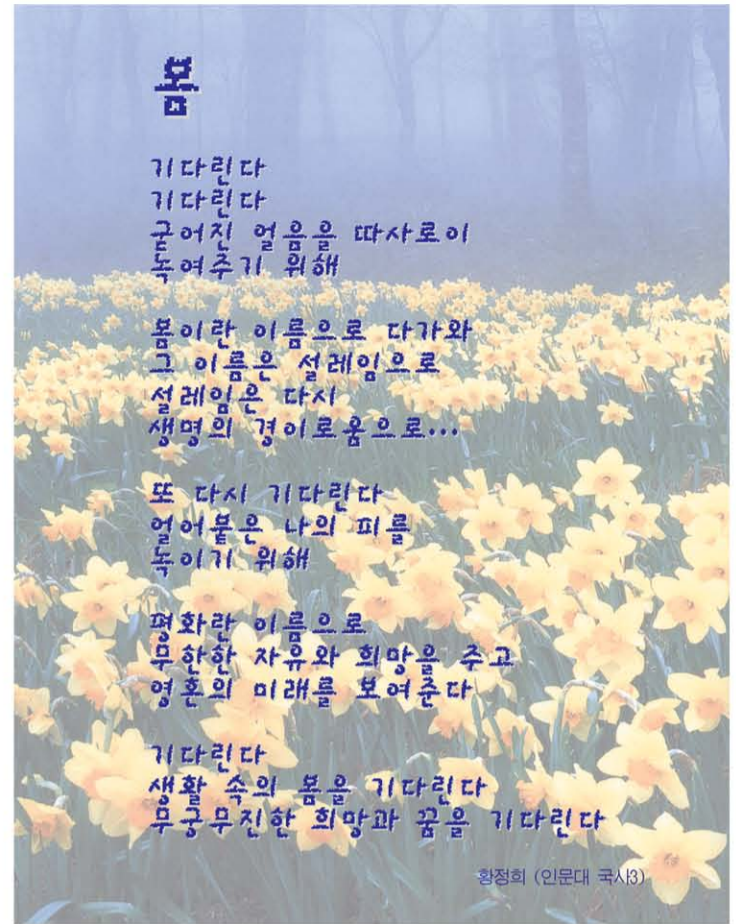
성건동 거주 학생 중에는 신입생들의 비율 또한 상당할 것이다. 이제 잣 대학에 발을 들여 놓은 신입생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이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자화상은 과연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대학이 술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미선 (상경대 경성2)

도서관 소음 해결 시급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어눌함으로 교정의 3월은 생명력이 넘쳐난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도서관 학생들은 귀를 틀어막고 지내게 된다. 공간부족 탓인지 대부분의 행사가 도서관 앞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 차례 도서관 이종창문 설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당국이나 학생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드려 사정을 하고 싶다.
 우선 학교당국에 이종창문 설치를 거듭 바라는 바이다.
 진정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이종창문 설치를 해 주어야 한다.
 학생회와 풍물패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바란다.
 협소한 공간 사정으로 팔정도야 만해 광장에서 행사와 연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그들이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라면 도서관을 드나드는 수많은 동료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이해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도서관 환경에 대해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

김상현 (사범대 국교3)



봄

기다린다
기다린다
굳어진 얼음을 따사로운
녹여주기 위해

봄이란 이름으로 다가와
그 이름은 설레임으로
설레임은 다시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또 다시 기다린다
얼어붙은 나의 피를
녹이기 위해

피화라 이름으로
무한한 자유와 희망을 주고
영혼의 미래를 보여준다

기다린다
생활 속의 봄을 기다린다
무궁무진한 희망과 꿈을 기다린다

황정희 (인문대 국사3)

동국DC카드 이용,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

할인혜택으로 학생들 생활에 도움돼

e-비즈니스의 발달과 신용사회화 덕분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등 다양한 카드들을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본교 경주캠 내에서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들어쓰는 동국DC카드가 있다.
 이 카드의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체를 선별 선정하여 가격할인혜택을 중심으로 제작, 학생들에게 배포하게 된다.
 이 카드의 유익한 면을 보면, 한 업체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업체의 가격 하락을 유도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며 업체에서는 매출증대에 따른 이윤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단순히 보면 가격에만 집

중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가격을 인하한다면 다른 업소에서도 상대적으로 동반하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물가에 영향을 줘 학교 일대 상권의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소비와 물가의 많은 요인들이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현재 많은 업체들이 단합과 협회 구성을 통해 상호간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학교 주변은 일년 중 6개월 장사밖에 못한다는 불편한 인식을 가진 업자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동국인이 비록 적은 액수의 할인이더라도 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게 되며 각 개인의 생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가 점점 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류진열 (관광대 관경4)

희망찬 대학생할 기대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입학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처음 수강신청 할 때만 해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과연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해낼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몰라 걱정도 됐다.
 하지만 지난 새터에서 친절한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 지금은 학교 생활이 한껏 즐겁다. 새터에서는 동기들과 친해지고 술자리에서는 동기들과 선배들 모두 친해질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또한 경영대 풍물패인 '한파끼리'에 가입해 평소 관심있었던 풍물놀이를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즐거운 대학생활이 기대된다. 다른 새내기들도 자유롭게 활기찬 대학에서 마음껏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과 공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다.

황두하 (경영대1)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나무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제육두부찌개(1300)
화	참치비빔밥(1500) 비엔나볶음밥(1500)
수	햄숙이찌개(1500)
목	불고기덮밥(1500) 순대볶음(1300)
금	장터국밥(1300)
	오징어볶음(1500) 쇠고기볶음(1500)
	육개장(1500)
	돈까스(1500) 소고기명양탕(1500)
	찜닭국밥(1500)
	후라이드치킨(1500) 제육김치볶음(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김치국밥(1500) 함박(3000)
화	불고기비빔밥(1500) 치킨까스(2500)
수	갈비탕(1500) 돈까스(2500)
목	비빔밥(1300) 함박(3000)
금	쇠고기비빔밥(1500) 치킨까스(2500)
	탕수육덮밥(1500) 함박(3000)
	돈육김치볶음(1300) 생선까스(2500)
	떡볶이스파게티(1500) 정식(3000)
	부대찌개(1500) 함박(3000)
	치킨샐러드(1500) 돈까스(2500)

(단위:원)



동악광장

목격글

추하합니다

△21세기형 신개념 미남 율환이 형, 제대 축하드려요. -21세기형 신개념 미녀 △새터 5조 선영과 성기 couple탄생을 축하해요. ps) 예열이 형도 축하해요. -eric △일진과 규상오빠. 정말 축하해요. -봉볼 △SUN과 고. 벌써 1년이네. 앞으로도 풀이 항상 행복하길. -SONG △혜선이야 생일축하해~ -명혜 △이마로심(심혜선) 생일 축하할께. -세무회계 99동기 △세무회계 말라겐이 생일축하!! -99영선 △14일 국고 은지 생일, 16일 국고 민경 생일 축하해여~ △15일 법학과 최은자! 생일 축하해~ -세원 △병우야~ 전역 축하한다. -미초 △애벌레 진영, 지났지만 16일 생일 축하

해. -기용끼용 △윤리문화95 이기원 생일 축하&무지 사랑해! △세무회계99 심양!! 생일 축하하는거 알지?? -영선

열심히 합시다

△최강 광고종족 AD. RUSH 12기 맞아 열심히 합시다. -우지니 △33대 으뜸 문과대 3월달 총집중 공생 합시다! △민족 국문 최강 97 쓰레기들, 제대 축하하고 열심히 살자! -97미소년 △이과대 라·면·ปัง 공연 준비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심민 △정, 주, 만 공부 열심히합시다... -모두 합력!!!

그리고...

△문과대 여학우 여러분 만화열무 오세요! △대훈♡소연 HAPPY하게 살아랏! △도식♡해린 행복하세요! -의문의 Y가

은방글

추하합니다

△3월 13일 박민규와 조희라의 200일을 축하!! -95 family △3월 14일 이쁜 수진아, 우리 4학년이야! 벌써~ 열심히 하자꾸나. 글구 엮기 하렘과 구여쁜 은주도~ -색쉬 영일! △3월 14일 성훈아! 복학축하해. ps)밥 많이 사주셔~ -T.G. Girls △3월 18일 국사학과 동이와 가정교육과 미나의 300일입니다. 헤미야 사랑해~ △3월 19일은 호준이와 상미의 200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여~ △정희♡진수, 300대 지난 거 축하하구요. 행복하셔요 해요~ -tbbang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 '짱' 이름 없는 동호회 회

장노릇 힘들지? 정구 동아리가 되는 그 날까지 고생하자! -코스프레 민민세!!! △성희야~ 매일 통학하느라 고생 많지? 방 구할 때까지 참아. -에비방짜

열심히합시다

△팔계사마~ 조정 복수전공 많이 힘들죠? 열심히 하시구어. 어려운 일 있어두 포기하지 마세요. △노랑머리! 동아리 활동 많이 힘들지?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않을 찾아가서 확~ 크로스 카운터를 날려버린다!!! -K&Y 그리고...

△허허... 추씨 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공무원 시험 준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원지야! 대학생활 재미있니? 요거 보거든 말 안나한테 연락 좀 해라!!! -카이가 △은주야, 시험친다고 고생 많이 했다. 꼭 합격하길 빌게. -이뿌니 친구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콩나물국(1300) 마파두부덮밥(1800)
화	팔보채덮밥(1800) 해물볶음밥(1800)
수	얼갈이국(1300) 돈까스(1500)
목	불고기덮밥(1700) 아채견경비빔밥(1300)
금	근대국(1300) 미트볼덮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김치비빔밥(1500)
	시금치국(1300) 케라라이스(1500)
	생선까스(1800) 불부덮밥(2000)
	미역국(1300) 라면덮밥(1500)
	햄이채볶음밥(1600) 탕수육밥(1800)
토	북어채국(1300)
	참치아채덮밥(1500) 정태국밥(1300)
일	아육국(1300)
	제육오징어덮밥(1600) 정태국밥(1300)

(단위:원)